

# 석유화학, 중국에 밀려 어디로 가나!

## 국제경쟁력 약화산업에 포함 ... 플라스틱·섬유도 설 곳 잃어 방황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한 플라스틱, 섬유제품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산업으로 분류돼 기초·중간 투입재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한국-중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대 석유화학 관련산업은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고무, 제지산업을 포함한 무선통신기기, TV, 컴퓨터 등 주요 IT업종 등 주요 경공업업 중심으로 한 13개 제품군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999-2003년 나타난 한국-중국 무역특화지수 차이의 확대 또는 축소를 중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 또는 약화로 보고 산업의 업종별, 성질별, 가공단계별 국제경쟁력을 조사·분석했는데, 섬유산업에 대해 고가 제품 위주로 생산원가 절감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는 물론 디자인, 품질, 브랜드 이미지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차별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03년 현재 총 21개 제조업 중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유기화학 등 14개 업종에서 중국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3개 업종에서 우위를 점하고 4개 업종은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4년 7월 산업은행이 작성한 <한·중·일 주요산업의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에서도 2004년 7월 현재 한국의 제조업 기술수준이 중국보다 3.8년 앞서고 있으나 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 등 주요 IT산업과 경공업은 불과 2.5년 이내의 근소한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머지않아 우위를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 국내산업과 중국의 국제경쟁력 비교

구 분	부 문	한국우위[14개]	경합[4개]	중국우위[3개]	
경쟁력 강화 [8개]	중화학[7개]	반도체(3.7), 자동차(19.4), 조선(13.0), 철강(2.1), 유기화학(26.0)	정밀기기(▽6.2)	석탄·원유(▽23.8)	
		경공업[1개]	-	귀금속(▽25.8)	
경쟁력 약화 [13개]	중화학[8개]	무선통신기기(▽58.3), TV(▽15.6), 기타기계류(▽8.1), 플라스틱(▽4.5), 석유제품(▽48.3)	기타전기기기(10.6), 컴퓨터*(▽12.1), 비철금속*(▽15.3)	-	
		경공업[5개]	섬유(▽28.9), 제지(▽49.0), 고무제품(▽3.9), 원피·가죽(▽32.0)	-	의류(57.5)

한편, 보고서는 국내산업의 중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R&D 및 설비투자의 활성화 ▷중국 경쟁우위가 약화되고 있는 주요 IT업종과 경공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적극 발굴·육성 및 비가격경쟁력 제고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강화 등을 통한 IT, BT, NT 등 신기술산업의 적극육성 ▷부품 및 소재산업의 집중육성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동유럽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확대 및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노력 강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미래 주력 수출품목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9/06>